



# 보다 효과적으로 말하기 (데일 카네기)

eBook

[dalecarnegie.com](http://dalecarnegie.com)

# 파트1: 대중 스피치 빠르고, 쉬운 방법

당신은 다음과 같이 자문할 수 있다: “대중 스피치를 빠르고,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 또는 “이것은 제목이 뜻 하는 것 이상의 것을 약속하는 단지 아주 흥미로운 제목일 뿐인가?”

아니다. 나는 지금 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나는 정말로 당신을 중요한 비밀로 안내하려고 한다 – 즉시 당신으로 하여금 대중 스피치를 보다 쉽게 하게 할 수 있는 비밀로 말이다. 나는 이것을 어디서 발견했는가? 어떤 책을 통해서 인가? 아니다, 어느 대학의 대중 스피치 과정에서 인가? 아니다. 나는 그런 건 들어보지도 못했다. 나는 그것을 어렵게 발견해야 했다- 점차, 천천히, 그리고 힘들게 말이다

만일 대학시절로 돌아가 누군가 나에게 효과적인 스피치와 글쓰기의 열쇠를 주었다면, 나는 수년간의 애끓는 노력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한 때 링컨에 관한 글을 썼다; 글을 쓰는 동안 내가 이제부터 당신에게 공개할 그 위대한 비밀을 알았었다면 허비하지 않을 수 있었던 적어도 1년의 시간을 낭비했었다.

똑 같은 일이 내가 소설을 쓰면서 2년의 시간을 보냈을 때도 일어났다.

내가 대중연설에 대한 책을 쓰는 동안에도 똑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 내가 성공적인 스피치와 글쓰기의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또 다시 시간을 허비하였다.



## 가능하다면, 준비에 수 년의 시간을 투자하라

당신 눈 앞에서 내가 궁금증을 자아내는 이 귀중한 비밀은 무엇일까? 바로 이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의 연구나 경험을 통해 말할 자격을 얻은 것에 관하여 말하라.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말하라. 연설을 준비하는 데 10분 또는 10시간의 시간도 쓰지 말라: 10주나 10달의 시간도 쓰지 말라. 10년은 더 더욱 쓰지 말라.

당신의 관심을 불러 일으킨 것에 관하여 말하라. 청중들에게 꼭 말하고 싶은 욕구를 느낀 것에 관하여 말하라. 내가 말하는 것에 관한 사례를 들어 보기 위해 뉴저지 주 로젤의 가정주부 게이 켈로그의 이야기를 들려 주겠다. 게이 켈로그는 뉴욕에서 우리 코스 중의 하나에 참가하기 전까지 한번도 대중연설을 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무척 긴장하였다. 그녀는 대중연설은 그녀의 능력을 벗어난 막연한 기술이라 생각하며 두려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 4과에서, 즉석 스피치 시간에, 청중들을 매료시켰다. 나는 그녀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후회”에 관한 스피치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매우 감동적인 연설을 하였다. 청중들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안다.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는 것을. 그녀의 연설은 다음과 같았다:

“제 인생의 가장 큰 후회는 어머니의 사랑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저의 어머니께서는 제가 1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자신들의 아이들에 몰두하느라 저를 돌볼 시간이 없었던 이모와 다른 친척분들에 의해 양육되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제가 오는 것을 못 마땅해했고 제가 돌아갈 때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어떤 관심도, 애정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를 원치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린 아이였지만, 저는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주 외로움 때문에 잠자리에 들면서 울었습니다. 저의 가장 큰 바람은 누군가 저에게 저의 학교 성적표를 보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이로서 제가 바랐던 모든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 그리고 아무도 저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습니다.”

게이 켈로그가 이 연설을 위해 10년을 준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녀는 20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 잠자리에 들면서 울었을 때 그 연설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에게 아무도 학교 성적표를 보자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슴이 아팠을 때부터 그 연설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그 주제를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녀의 마음 속에서 어린 시절의 추억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음 속 깊이 자리잡고 있던 비극적인 추억과 감정을 되살렸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과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연설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오직 해야 했던 것은 그녀

의 억눌린 추억과 감정들을 마치 유정에서 기름을 끌어 올리는 것처럼 표면으로 끌어 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명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훌륭한 스피치의 명예와 짐도 마찬가지이다. 비효과적인 연설은 보통 글로 적은 것을 보거나 암기해서 말하는 경우이거나 어렵게 그리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다. 훌륭한 스피치는 당신 자신으로부터 샘물처럼 솟아나는 것들이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수영을 하는 방법대로 스피치를 한다. 나는 물과 싸우고, 지쳐 가면서 전문가의 10분의 1 속도로 나아가게 된다. 스피치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마치 수영하는 사람처럼, 몹시 긴장하며 얼굴을 찡그리게 된다 -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잃게 된다.

## 주제에 흥분하라

심지어 신통치 않은 스피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자신들을 깊게 감동시켰던 것에 관하여 이야기한다면 탁월한 스피치를 할 수도 있다. 나는 몇 년 전 브루클린 상공회의소에서 코스를 진행하고 있었을 때 놀라운 사례를 목격하였다. 그것은 일생을 통하여 기억할 모범 사례였다. 그 사례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우리는 즉석 스피치 시간을 갖고 있었다. 수강생들이 모인 후, 나는 그들에게 “종교가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대해 말하게 하였다.

한 수강생(그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다)이 내가 사람들에게 대중연설을 가르치고 있었던 그 해에 다른 어떤 수강생들에게서도 보지 못했던 것을 보여 주었다. 그의 스피치는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 스피치가 끝났을 때 그 강의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조용한 찬사의 의미로 일어섰다.

그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그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는 너무도 슬픈 나머지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았다. 그는 말하기를, 집을 나서는데 심지어 날씨가 화창한 날이어도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았다고 했다. 그는 죽기를 갈망하였다. 절망에 빠져 그는 교회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하였고, 어느덧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 – 신이 주시는 내려 놓음의 평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의 연설이 끝났을 때 그는 마치 신의 계시를 받은 것 같은 사람의 목소리로 말했다: “종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정서적인 충격으로 말미암아 그 스피치를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의 감동적인 스피치를 축하해 주었을 때, 그는 대답하였다: “예, 저는 어떤 준비도 없이 그 스피치를 하였습니다.”

준비? 글썄요, 그가 그 스피치를 준비하지 않았었다면..... 나는 그 준비란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물론 그는 그 스피치를 준비해야 한다는 어떤 사전 예고도 받지 못했다. 그가 사전 예고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참 다행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만일 그가 사전 예고를 받았었다면, 그 스피치는 그리 감동적이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 스피치를 위해 많은 고심을 하였을 것이고 그 스피치는 인위적이었을 것이다. 대신에, 그는 몇 년 후 게이 켈로그가 했던 것과 같은 연설을 하였던 것이다 – 그는 서서, 마음 문을 열고 마치 다른 사람과 이야기 하듯, 스피치를 하였다.

중요한 사실은 그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했을 때 그 연설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다. 충격적인 운명의 삶을 살고, 느끼고, 생각하고, 견디는 것 – 이것이야말로 스피치나 글쓰기를 위한 가장 훌륭한 준비인 것이다.

## 연설할 주제를 위하여 자신을 들여다 보아라

스피치를 처음 해 보는 사람들은 스피치 주제를 위해 자신을 들여다 보는 것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고? 그들은 그런 말을 들어 본 적도 없다. 그들은 오히려 스피치 주제를 위하여 잡지를 들여다 보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지하철에서 수강생 중의 한 명을 만난 기억이 있다. - 코스에서 별 다른 진보를 하지 못해 낙담해 있던 여자 수강생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지난 주에 무엇에 대해 말하였는지 물어 보았다. 나는 그녀가 무솔리니의 에디오피아 침공이 허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말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타임지 기사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했었다. 그녀는 그 기사를 두 번 읽었었다. 나는 그녀에게 그 기사에 흥미가 있었냐고 물었고 그녀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왜 그 주제에 대해 말했느냐고 물었다. “글쎄요,” 그녀가 대답했다. “뭔가를 말해야 했고, 그래서 그 주제를 선택했어요.”

생각해 보라: 여기에 무솔리니의 에디오피아 전쟁에 관하여 말하려 했던 여자 수강생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주제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고, 관심도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녀는 말할 자격이 있는 주제를 말해야 한다는 것을 잊었었다.

대화를 끝낸 후,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저는 당신이 경험을 했거나 알고 있는 것에 관하여 연설을 한다면 저는 존경과 관심을 가지고 경청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솔리니의 에디오피아 침공과 같이 당신이 관심이 없는 주제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주목이나 존경을 받을 만큼 그 주제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합니다.”

## 책이 아닌, 가슴으로부터 이야기 하라

대중 스피치 강좌의 많은 수강생들은 그 여자 수강생과 비슷하다. 그들은 스피치 주제를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나 확신하는 것으로부터가 아니라, 책이나 잡지 등으로부터 얻기를 원한다. 예를 들어, 나는 몇 년 전 NBC 네트워크를 통해서 진행되었던 대학 대항 스피치 콘테스트의 3명의 심사위원 중 한 명이었다. 심사위원들은 스피치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없었다. 우리는 라디오 시티의 8G 스튜디오에서 스피치를 들었다. 나는 대중 스피치 강좌의 모든 수강생들과 강사들이 스튜디오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목격할 수 있기를 바랬었다. 첫 번째 참가자는 “크로스로드의 민주주의”에 대해 말하였다. 그 다음 참가자는 “전쟁을 막는 법”에 대해 말하였다. 그들은 주의 깊게 연습하고 암기한 말들을 되풀이하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였다. 따라서 스튜디오 안의 게스트도, 심사위원들도 그들의 연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심사위원 중의 한 명은 윌렘 헨드릭 밴 루운이었다. 그가 참가자들 중의 한 명을 만화로 그리기 시작했을 때, 모든 사람이 서서 그를 바라보았고, 방송을 통하여 나오고 있었던 암기한 말과 같은 서투른 연설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참가자는 나의 관심을 즉시 사로잡았다. 예일대 4학년생인 그는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말하였다. 그는 그 주제에 말할 자격을 갖고 있었다. 우리는 존경 어린 눈 빛으로 그의 스피치를 경청하였다. 일등을 차지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자동차 사고로 죽음이 임박한 제 친구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지금 막 왔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사고는 젊은 세대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젊은 세대의 한 일원이고 이 자동차 사고의 원인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스튜디오의 모든 사람들은 그가 스피치를 시작하자 조용해졌다. 그는 스피치를 하려 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말하고 있었다. 그는 말할 자격을 얻었던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그가 잘 알고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었다.

## 말하기를 열망하라

하지만, 단순히 주제에 대하여 말할 자격을 갖는 다는 것이 항상 멋진 스피치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다. 또 다른 요인이 추가되어야 한다 – 그것은 스피치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다. 요컨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말할 자격을 얻는 것에 덧붙여서, 우리는 우리의 청중들에게 우리가 확신하는 바와 우리의 감정을 전달하고자 하는 깊고, 변치 않는 욕구를 갖고 있어야 한다.

예시: 내가 옥수수와 돼지를 기르는 것에 관한 연설을 요청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나는 미주리주의 옥수수와 돼지 농장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냈다. 따라서, 나는 분명히 그 주제에 대해 말할 자격을 얻었다. 하지만, 나는 그 주제에 대해 말하고 싶은 특별한 욕구가 없다. 그러나 내가 대학에서 받은 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기를 요청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내가 그 주제에 대해 말한다면 나는 그 스피치에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좋은 스피치를 위한 세 가지 기본 요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첫 째, 나는 내가 말할 자격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한다. 둘째, 나는 당신에게 전달하기를 갈망하는 강한 확신과 감정을 갖고 있다. 셋 째, 나는 나의 경험으로부터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사례들을 갖고 있다.

게이 켈로그가 그녀의 삶에서 가장 큰 후회에 대하여 스피치 하였을 때 –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 그녀는 고난을 통해 그 주제에 대해 말할 자격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주제에 대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강한 정서적 욕구를 갖고 있었다. 브룩클린 상공회의소 클래스에서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말하였던 그 수강생도 마찬가지였다 –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역사는 자신들의 확신과 감정들을 청중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만일, 존 웨슬리가 그러한 욕구나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었다면, 전 세계를 아우르는 종파를 만들 수 없었을 것이다. 만일 페르디낭 아마아네시스가 그러한 욕구와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었다면,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없었을 것이고, 유럽을 성지를 차지하기 위한 헛되고도, 유혈이 낭자한 십자군 전쟁으로 몰아넣을 수 없었을 것이다. 히틀러가 그의 증오와 신랄함을 그의 청중들에게 전달하는 타고난 능력이 없었더라면 독일에서 권력을 쥐고 전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 넣을 수 없었을 것이다.

## 자신의 경험에 관하여 말하라

당신은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스피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 이 스피치는 당신 외에 이 세상 아무도 할 수 없는 스피치이다. 왜냐하면, 아무도 당신이 갖고 있는 경험과 똑 같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 주제들은 어떤 것들일까? 나는 모른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다. 몇 주 동안 종이 한 장을 갖고 다니면서 당신이 경험을 통해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주제들이 생각날 때 마다 적어라 – 그 주제들은 “내 인생의 가장 큰 후회”, “나의 가장 큰 야망”, “내가 학교를 좋아했던(싫어했던)이유” 등과 같은 것들이다. 한 번 해보라. 그러면 얼마나 빠르게 연설주제 목록들이 늘어나는지를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여기에 당신을 위한 굿 뉴스가 있다. 연설에 있어서 당신의 진보는 연설에 있어서 타고난 능력보다는 올바른 연설주제를 선택하는 것에 훨씬 더욱 영향을 받는다. 당신이 만일 게이 켈로그가 했던 것처럼 한다면 즉시 편하게 멋진 연설을 하게 될 것이다:

당신에게 깊게 영향을 준 경험에 대해 말하라. 당신이 20여년 동안 생각해 온 경험들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무솔리니의 에디오피아 침공”이나 “크로소로드의 민주주의” 등에 관해 연설하려 한다면 당신은 정말 쉽지 않을 수 있다.



## 당신이 연구한 것에 관해 말하라

자신의 경험에 대해 말하는 것은 분명 용기와 자신감을 개발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하지만, 경험에 관하여 얘기한 후에 당신은 다른 주제를 말하고 싶을 것이다. 그 다른 주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디에서 그 주제들을 찾을 수 있는가? 어느 곳에서든지 찾을 수 있다. 나는 뉴욕 전화회사의 임원 클래스를 진행했을 때 그들에게 그 주제에 떠오른 스피치를 위한 모든 아이디어들을 적어보라고 하였다. 때는 11월 이었다. 한 수강생이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추수 감사절을 보고 감사해야 하는 많은 것들에 대해 스피치를 하였다. 또 다른 수강생은 거리의 비둘기를 보았다. 그것은 하나의 생각을 떠올리게 하였다. 그 수강생은 내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비둘기에 관한 스피치를 하였다. 그러나, 그날 밤 스피치 수상자는 지하철에서 한 남자의 옷깃에 기어올라가는 빈대를 본 수강생이었다. 그 수강생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내가 기억하는 스피치를 하였다.

## 메모수첩을 가지고 다녀라

볼테르가 했던 것처럼 하는 것은 어떨까? 18세기 가장 뛰어난 작가들 중의 한 명인 볼테르는 항상 주머니에 그가 “메모수첩”이라고 부른 것을 갖고 다녔다 – 그 수첩에는 그의 머리 속에 순간 떠오르는 일련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적혀 있었다. 메모수첩을 갖고 다녀보라. 만일, 예를 들어, 무례한 직원 때문에 짜증이 났다면, 그 메모수첩에 “무례함”이라고 적어 보아라. 그리고 나서 무례함과 관련된 2~3가지의 특별한 사건들을 회상하려 노력하라. 가장 좋은 사례를 선정하여 그 사례와 관련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하라. 야앗! 이제 당신은 2분 동안 무례함에 관한 스피치를 합니다. 스피치 할 주제를 찾기 시작하자마자 그 주제들을 어디서든 찾을 것이다 – 집에서, 사무실에서, 거리에서.

## “쉬운 주제를 말하라”

“원자폭탄”과 같은 전 세계를 요동시킬 주제에 대해 말하려 하지 마라. 쉬운 주제를 선택하라. 당신이 주제를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제가 당신을 감동시킨다면 어떤 주제건 적절할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에 나는 시카고에 사는 메리 에이 리어라는 수강생이 “뒷 문”이라는 주제로 스피치를 하는 것을 들었다. 제목을 보면 그녀의 스피치가 지루하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그 스피치를 들었었다면, 그녀가 주제에 긍정적으로 흥분했었기 때문에 그 스피치에 매료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사실, 나는 뒷문에 페인트 칠하기에 대해 그런 빛나는 열정으로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것이다: 거의 어떤 주제건 당신이 연구나 경험을 통하여 말할 자격을 얻고, 그것에 흥분하며, 말하기를 열망한다면, 훌륭한 스피치가 될 수 있다.

## 이것이 그 유명한 뒷문 이야기이다!

“4년 전 나의 새 아파트로 이사 왔을 때, 그 뒷문은 칙칙한 갈색 페이트가 칠해져 있었다. 정말이지 끔찍했다. 내가 뒷문을 열 때마다 기분이 우울해질 정도였다. 그래서 나는 멋진 파란색 페인트를 사서 뒷문 바깥쪽과 문설주, 그리고 망으로 된 문 안쪽을 칠했다. 그 페인트는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멋진 파란색이었다. 파란색 칠을 한 후, 나는 그 뒷문을 열 때마다 나는 마치 천국을 들여다 보는 것 같았다.”

“얼마 전 내가 저녁에 집에 도착하여 그 아파트 페인트 작업자가 망으로 된 문을 열고 나의 멋진 파란색 뒷문을 흥측한 회색으로 칠해버린 것을 보았을 때 보다 내 인생에 있어서 더 화나는 일은 없었다. 나는 기꺼이 그 페인트 작업자의 목을 조르고 싶었을 것이다.”

“당신은 앞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보다 뒷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앞 문은 당신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자주 예쁘게 치장된다. 하지만, 뒷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준다. 지저분한 뒷문은 우리로 하여금 지저분한 집안살림을 엿볼 수 있게 한다. 하지만, 멋진 색이 칠해진, 그리고 화분과 더불어 채색되고, 가지런히 놓여진 폐 깡통들로 둘러싸인 뒷문은 그 집안에 생동감 넘치는 상상력을 지닌, 흥미로운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준다; 난 이미 멋진 파란색 페인트를 샀다; 나는 다음 주 토요일 페인트 칠을 하며 멋진 시간을 가질 것이다. 나는 또다시 나의 뒷문을 멋지고 영감을 주는 뒷문으로 만들 것이다.”

이야기는 그렇게 진행된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연사의 힘을 보여주는 좋은 예들로 채워질 것이다:

- a) 연구와 경험으로 그 주제를 말할 자격을 얻은 연사
- b) 주제에 흥분한 연사
- c)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청중에게 전달하기를 열망하는 연사





## 스피치를 준비하고 전달하는 법

스피치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8가지 원칙이 있다 :

### I. 말하고자 하는 재미있는 것들을 메모하라.

### II. 스피치 내용을 적지 마라.

왜냐고? 만일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쉬운, 대화체 말 대신, 글로 적은 것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이 서서 말할 때, 당신은 아마도 당신이 적은 것을 기억하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생기 넘치는 연설을 방해할 것이다.

### III. 절대, 절대, 절대 스피치를 외우려 하지 마라.

만일 스피치를 외워서 하려 한다면 당신은 그 스피치를 필시 외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청중은 아마도 좋아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도 녹음된 듯한 말을 계속 듣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스피치를 외우는 데 실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스피치는 암기하고 있는 듯 들릴 것이다. 당신의 눈을 멍해질 것이고, 목소리는 멀리서 말하는 듯 들릴 것이다. 당신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사람의 목소리로 들려지지 않을 것이다.

긴 스피치에서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잊을까 두렵다면, 간단하게 종이에 메모를 하여 손에 쥐고서 잠깐씩 보라. 내가 보통 그렇게 한다.

### IV. 당신의 스피치를 사례와 예시로 채워라.

이야기를 재미있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예를 많이 드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을 예시를 들어 보여주기 위해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본 소책자를 보자. 본 소책자의 절반은 예시에 할애하고 있다. 첫 번째로, 어린 시절에 겪었던 고난에 대한 게이 켈로그의 이야기가 있다.

다음으로, “만일 종교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말한 연사의 예가 있고, 다음으로, 무솔리니의 에디오피아 침공에 대해 말하려 했던 한 여자 수강생의 예가 있다. 그 뒤를 이어, 라디오 방송에 나온 스피치 콘테스트에 참가한 4명의 대학생들의 이야기

가 있다. -기타 등등. 책을 집필하거나 스피치를 준비할 때 내가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아이디어를 얻는 게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명확하고, 생생하고, 잊지 못하게 만드는 사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고대 로마 철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곤 했다. “사례가 가르친다.” 이 얼마나 옳은 얘기인가?

예를 들어, 사례의 가치를 알아 보자. 몇 년 전, 한 국회의원이 쓸모 없는 팜플렛을

만들면서 국민의 돈을 낭비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하는 격렬한 스피치를 한 적이

있다. 그는 정부가 “황소개구리의 애정생활”이라는 팜플렛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하

면서 그의 주장에 대한 사례를 들었다. 만일, 구체적인 사례 “황소개구리의 애정생

활”이라는 것이 없었더라면 나는 그 스피치를 몇 년 전에 잊어버렸을 것이다.

시간이 더 많이 흐르면 나는 더 많은 다른 사실들을 잊게 될 수도 있지만,

“황소개구리의 애정생활”과 같은 팜플렛을 만들면서 국민의 돈을 낭비한 정부에

대한 그의 비난은 잊지 못할 것이다!”

사례는 가르침을 줄 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주는 유일한 것에 관한 것이다.

나는 확실히 기억나게 해 줄 사례들이 없었기 때문에 금방 잊게 된 멋진 연설을 들은 적이 있다.

### V. 당신이 전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어야.

미국의 가장 뛰어난 작가들 중의 한 명인 아이다 타르벨은 몇 년 전 런던에 있는 동안 맥클루어 메거진의 설립자 에스에스 맥클루어로부터 아틀란틱 전선회사에 대한 2페이지 기사를 써달라고 하는 전보를 받았다고 나에게 말했다. 타르벨은 아틀란틱 전선회사의 런던 지사장을 인터뷰하여 5백자 기사를 쓰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입수했다. 그러나 그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영국 박물관 도서관에 가서 아틀란틱 전선회사에 대한 잡지기사와 책을 읽었고, 아틀란틱 전선회사를 설립한 사이러스 웨스트 필드의 전기를 읽었다. 그녀는 영국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전선의 횡단면에

대해 공부했고, 런던 교외에 있는 공장을 방문하여 전선 제조과정을 지켜 보았다. 타르벨이 말하기를, “내가 아틀란틱 전선회사에 대해 타이프로 친 2페이지 짜리 기사를 썼을 때” 그녀가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나는 그 회사에 대해 작은 책을 쓸 정도로 충분한 자료들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내가 갖고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은 엄청난 자료들은 나로 하여금 자신감과 명확성, 그리고 흥미를 가지고 썼던 것을 쓸 수 있게 하였다. 그것은 나에게 준비된 힘을 주었다.”

아이다 타르벨은 몇 년간의 경험을 통해 아틀란틱 전선 회사에 대한 500자 기사를 쓸 자격을 얻었어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똑 같은 원칙이 연설에도 적용이 된다. 당신의 주제에 대해 권위를 가져라. 준비된 힘으로 알려진 값을 따질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을 개발하라.

## VI. 친구들과 대화하며 스피치를 연습하라.

월 로저스는 그 주간에 만났던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의 스피치를 테스트 해봄으로써 그의 유명한 일요일 밤 라디오 스피치를 준비하였다. 예를 들어, 만일 그가 금 본위제에 대한 연설을 원했다면, 그 주 내내 대화를 통해 그 주제에 대해 편하게 얘기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의 농담 중 어떤 것이 받아 들여지고, 어떤 말이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 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거울 앞에서 제스처와 함께 연설을 연습하는 것 보다는 대화를 통해 말하기를 연습해 보는 것이 훨씬 나은 방법이다.

## VII. 전달력을 걱정하는 것 대신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라.

그 동안 스피치와 관련하여 몹시도 해롭고, 사람들을 호도하는 터무니 없는 글들이 씌어왔다.

진실은 바로 이것이다. 당신이 청중을 대할 때 목소리, 호흡, 동작, 자세, 강조점등에 관한 모든 것들을 잊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중들이 원하는 것은, 햄릿 어머니가 말한 것처럼, “기교 보다는 내용”이다.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 할 때 하는 것을 해 보라. 고양이는 다음과 같이 주위를 둘러 보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다: “내 꼬리가 어떻게 보일까? 내가 똑바로 서면 어떨까? 내 얼굴 표정은 어떻게 보일까?” 오우, 아니다. 그 고양이는 저

녁먹이감으로 쥐를 잡는데 몹시 열중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선 자세나 모습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 당신도 당신의 청중과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집중한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잊게 될 것이다.

청중 앞에서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음악과 미술을 배우는 것처럼, 수 년에 걸친 기술적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누구라도 집에서 화가 났을 때는 멋진 말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일 누군가 이 순간 당신을 끌어당기며 때려 눕힌다면, 당신은 지체없이 일어나 멋지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제스처, 자세, 얼굴표정 등은 완벽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당신이 느낀 분노의 표현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당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배울 필요는 없다. 당신은 생후 6개월 되었을 때 당신의 감정을 멋지게 표현할 수 있었다. 어느 어머니에게 물어봐도 이 말에 동의할 것이다.

놀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보라. 얼마나 표정들이 좋은가! 얼마나 완벽한 강한 어조와 제스처, 자세, 그리고 대화를 구사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자 없느니라.” 그렇다, 그리고 당신이 노는 아이들처럼 자연스럽게, 자발적이며, 자유롭게 되지 않으면, 멋진 표현은 어려울 것이다.

당신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어떻게 강한 어조로 말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제스처를 취하고, 어떻게 설 것인가를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효과일 뿐이다. 당신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그러한 효과들을 낳는 원인을 다루는 것이다. 그 원인은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다; 그것은 당신의 정신적, 감정적 태도이다. 만일 당신이 올바른 정신적, 감정적 상태에 있다면, 멋진 스피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굳이 멋진 스피치를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당신은 스피치를 마치 숨을 쉬듯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를 들자면, 미 해군 소장이 본 코스에 참가했었다. 그는 세계1차 대전 당시 미 해군 소함대를 지휘했었다. 그는 해군의 전투는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본 코스에

사례를 들자면, 미 해군 소장이 본 코스에 참가했었다. 그는 세계1차 대전 당시 미 해군 소함대를 지휘했었다. 그는 해군의 전투는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본 코스에

참가하기 위해 매주 코네티컷 주의 뉴 헤븐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뉴욕시대로 매주 오는 동안 수강생들 앞에 서는 것이 몹시 두려웠다. 6과가 지났고, 그는 여전히 두려웠다. 그래서 우리 강사진 중의 한 명인 엘머 니버그 교수는 그가 그의 두려움의 껍질로부터 나오게 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었다. 클래스에는 과격한 수강생이 한 명 있었다. 니버그 교수는 그를 한 쪽으로 데려가

말하였다: “정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지지하는 강한 연설을 할 수 있으실까요?” 분명, 당신은 그 해군 소장을 화나게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원하는 바 이지요. 그는 그 자신을 잊고 당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가운데 아마도 멋진 스피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과격한 수강생이 말했다. “좋습니다. 한번 해 보지요.” 그가 말하기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 그 해군 소장은 펄쩍 뛰면서 소리쳤다: “그만! 그만! 그건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이요!” 그는 이어서 우리가 자유로운 조국 덕분에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열변을 토하는 스피치를 하였다. 니버그 교수는 그 해군 소장을 돌아보며

말했다: “축하합니다. 소장님! 정말 멋진 스피치입니다.” 그 해군 소장이 통명스럽게 대답했다: “나는 스피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난 저 건방진 애

송이에게 좀 알려 주고 있을 뿐입니다.” 니버그 교수는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그 해군소장으로 하여금 두려움의 껍질을 깨고 나와서 그 자신을 잊도록 하기 위해 미리 꾸며 놓은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해군 소장은 당신이 당신 자신보다 큰 이유에 대해 흥분하였을 때 당신이 발견하게 될 것을 발견하였던 것이다. 모든 말하는 데 있어서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당신은 전달력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좋은 전달력을 가능케 하는 이유들은 필연적으로 당신을 위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복해서 말한다: 당신의 전달력은 단순히 그것을 앞서며, 그것을 만들어 낸 이유의 결과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전달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걸 바꾸려하며 혼란스러워 하지 마라.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 전달력을 야기한 이유를 바꾸어라.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태도를 바꾸어라

연설에 관한 교재를 쓰게 되었다.

나의 어리석은 시간낭비 경험으로부터 이익을 얻기를 바란다. 타인을 모방하려 하지 마라.

## VIII. 타인을 모방하지 말고, 당신 자신이 되어라.

나는 처음으로 미국 드라마 예술학원에서 공부하기 위해 뉴욕에 왔다. 나는 배우가 되기를 열망하였다. 나는 성공의 지름길에 관한 멋진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다. 나의 성공전략은 매우 단순하며 실패할 일이 없는 것이어서 야망을 품고 있는 수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사실을 이미 알지 못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성공전략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나는 당대의 유명한 배우들을 연구하였다 - 존 듀이, 이 에이지 소턴, 월터 햄프텐 그리고 오티스 스킨너등. 그리고 나서 나는 이 배우들의 가장 좋은 점들만을 모방하고, 그 빛나고 의기양양한 모습들을 결합하여 나에게 주입하려 하였다. 얼마나 어리석고, 슬픈 일인가! 나는 나 자신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내 머리 속에 떠오르기 전까지 나는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며 수 년의 시간을 낭비해야 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 관한 사례를 들어 보자: 몇 년 전 나는 비즈니스 맨들을 위하여 대중 스피치에 관한 지금까지 써어왔던 것 중에서 가장 훌륭한 책의 집필을 시작했다. 나는 책을 쓰는 것에 관해서도 이전에 연기에 대해 내가 가졌었던 것과 똑 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가졌었다. 나는 다른 많은 작가들로부터 아이디어들을 차용하여 그 모든 것들을 한 권의 책에 수록하려 하였다- 모든 것들을 포함하게 될 책 말이다. 그래서 나는 대중 스피치에 관한 많은 책

들을 구하여 그 책들 속의 아이디어들을 나의 원고에 집어 넣으면서 일년의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결국 내가 바보 짓을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분명해졌다. 내가 썼었던 뒤죽박죽된 타인의 생각들은 매우 인위적이고, 지루하여서 아무도 그 속에서 헤메고 싶어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1년간의 그 작업을 과감히 털어 버리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했다. 이번에는 나 자신에게 말했다: “너는 모든 단점과 한계점을 지닌 데일 카네기가 되어야 해. 너는 다른 어떤 사람도 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타인을 모방하려는 것을 벗어 버리고, 소매를 걷어 올리고서 우선적으로 내가 했었어야 했던 일들을 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나의 경험과 연구와 확신을 통하여 대중

연설에 관한 교재를 쓰게 되었다.

나의 어리석은 시간낭비 경험으로부터 이익을 얻기를 바란다. 타인을 모방하려 하지 마라.

당신 자신이 되어라. 어빙 벌린이 조지 거슨에게 해 주었던 현인의 충고대로 행동하라. 벌린과 거슨이 처음 만났을 때, 벌린은 유명한 사람이었다 - 거슨은 그 당시 틴 펜 엘리에서 주급35달러를 받으며 일하는 힘겨운 젊은 작곡가였다. 거슨의 재능에 감명을 받은 벌린은 그에게 그가 받고 있었던 급여의 3배에 달하는 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음악비서로 일하기를 제안하였다. “하지만 음악비서 일은 하지 마세요.” 벌린은 충고

# 당신 자신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다. “만일 그 일을 계속한다면 이류 별린은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만일 당신이 당신 자신이 되기를 고집한다면, 언젠가 일류 거원이 될 것입니다.” 거원은 그의 충고에 주목했고 그는 당대의 뛰어난 작곡가들 중의 한 명으로 자신을 서서히 변화시켜 나갔다. “당신 자신이 되어라! 타인을 모방하지 마라!” 이 말은 음악, 글쓰기, 말하기에도 공히 적용된다. 당신은 유일한 사람이다. 그 사실을 기뻐하라. 태초 이래로 당신과 같은 사람은 없었다; 미래에 도 당신과 같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개성을 최대한 살려라. 당신의 스피치는 당신 자신이 되어야 하고, 당신의 살아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당신의 스피치는 당신의 경험과 확신, 인격, 그리고 삶의 방식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결국, 모든 예술은 자전적이다. 당신은 당신 자신만을 노래할 수 있다. 당신은 당신 자신만을 그릴 수 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만 글을 쓸 수 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의 경험, 환경, 그리고 유전인자가 당신을 만든 것임에 틀림없다. 종던, 싫던, 당신은 당신 자신의 정원을 가꾸어야 한다. 종던, 싫던, 당신은 당신의 인생의 오케스트라에서 자신만의 악기를 연주해야 한다. 에머슨은 그의 수필집에서 “자기의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확신에 이르는 때가 있다. 즉, 시기는 무지요; 모방은 자살행위이며; 종던, 싫던, 자기자신이 되어야 하고; 드 넓은 우주가 선으로 가득차 있다 하더라도, 영양가 좋은 옥수수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토양에서 그 사람의 수고 없이는 수확될 수 없다. 사람의 내면의 힘은 사실상 새로운 것이며, 그 외에는 아무도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르며, 그 역시 그가 시도하기 전까지는 모른다.